

AI·데이터센터 등 성과… 글로벌 AX시장 선두 자리매김

〈인공지능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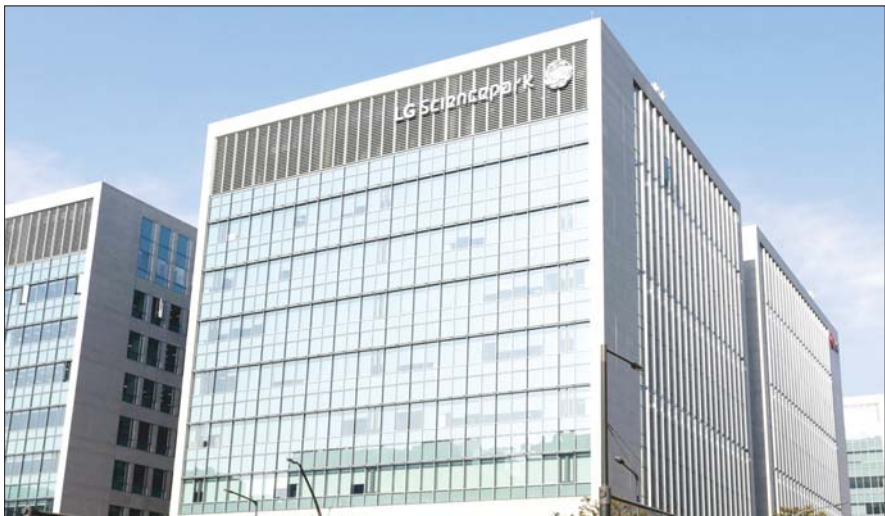
ITS 기업 상반기 결산

② LG CNS

LG CNS는 올해 상반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기술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인공지능 전환(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LG CNS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2114억원, 영업이익 789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AI·클라우드 사업은 전체 매출의 약 59%를 차지하며 주력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 AI 데이터센터 사업, 보안과 기술력으로 시장 선점

30일 LG CNS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성장의 핵심 축 중 하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LG CNS는 지난 23일 네이버클라우드와 죽전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하며 주목받았다. 코로케이션은 고객의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다. LG CNS는 오는 2033년 5월까지 네이버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를 죽전 데이터센터에 수용할 예정



LG CNS가 올 상반기 AI·데이터센터·로봇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AX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 CNS

네이버클라우드 코로케이션 ‘맞손’ 데이터센터 기술력 DBO 모델 성과

공공기관 AI 최대규모 사업 수주 로봇기술·ERP 등 해외시장 공략 주요대학과 AI 인재양성 나서

이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단순 공간 임대가 아니라 LG CNS의 데이터센터 기술력이 집약된 DBO(설계·건축·운영) 모델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공시에서 LG CNS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인 ‘매출 대비 2.5% 이상 계약’으로 인해 사명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고객사 요청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작년 매출액이 5조9826억원임을 감안하면 계약 금액은 최소 149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LG CNS는 죽전 외에도 부산, 상암, 가산 등 국내 거점과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사업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현재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를 위한

액집냉각·디지털트윈 등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진출을 준비 중이다.

◆ 공공·금융·제조 전방위 AI 혁신 주도

LG CNS는 공공 AI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회사는 올 6월 경기도교육청의 약 380억원 규모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AI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 5월 수주한 외교부 AI 플랫폼 사업(300억원 규모)에 이은 대형 성과다.

이번 경기교육청 사업을 통해 LG CNS는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교육 업무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 업무를 돕는 ‘AI 행정비서’와 학생·학부모를 위한 ‘AI 소통 도우미’ 등을 구축해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챗GPT 기반 ‘생성형 AI 금융지식 Q&A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NH농협은행에는 자체 플랫폼 ‘딥 젠(DAP Gen) AI’를 적용한

AI 솔루션을 공급했다.

제조 현장에서는 S-OIL과 협력해 공정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과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며 산업 지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 로봇·ERP·인재 양성으로 미래 사업 기반 구축

미래 성장 엔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LG CNS는 미국 로봇기업 스킨드 AI와 손잡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기로 했다.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는 ‘3D 모바일 셔플’ 로봇을 개발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함께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와 전략적 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클라우드 ERP(기업자원관리)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며, 인도 딜리버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LG CNS는 카이스트,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손잡고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력 풀을 확장하고 있다. LG CNS는 글로벌 매출 비중 확대를 목표로 기술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hjk1@metroseoul.co.kr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중심 오프라인 소통 본격화

미디어아트 전시·쇼케이스 등 문화기반 소통 접점 확장 전략 하반기 ‘디어프렌즈 페스타’ 예정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를 중심으로 미디어아트 전시, 모바일 쇼케이스, 유저 축제 등 오프라인 소통 전략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본업인 게임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접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게임플랫폼 위주 구조 속에서도 이용자 외소통하고 체험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경험이 팬덤 충성도와 브랜드 지속성의 핵심 축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에서다.



빛의 여정: 로스트아크 미디어아트전 전경. /최빛나 기자

특히 대표작 ‘로스트아크’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 신규 플랫폼 공개, 팬 축제 개최 등의 행보는 단발성 마케팅이 아닌 중장기 성과를 겨냥한 전

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3일 개막한 ‘빛의 여정: 로스트아크 미디어아트전’

이다. 서울 광진구 위커킬 호텔 내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 중인 이번 전시는 스마일게이트가 ‘로스트아크’ 론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로, 자사 대표 IP의 세계관을 예술 콘텐츠로 확장한 시도다.

이보다 앞선 18일부터는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가 열렸다. 스마일게이트가 직접 개발 중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유저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로, 온라인 쇼케이스와 함께 오프라인 체험존이 동시에 운영됐다.

스마일게이트가 오프라인 행사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말 열린 ‘버닝비버 2024’부터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이 창작문화 축제에서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재단은 청소년·청년 창작자를 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유저 기반이 아닌 문화 기반 소통 접점을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

상업적 홍보보다는 창작 생태계 지원을 강조한 참여였지만, 이후 이어진 ‘로스트아크’ 중심의 콘텐츠 확대 흐름과 맞물리며 현장 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하반기에도 유저 참여형 오프라인 행사인 ‘디어프렌즈 페스타’를 준비 중이다. 서브컬처 기반의 대형 페스티벌로 기획된 이 행사에서는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굿즈마켓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유저 커뮤니티와의 실질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대표 오프라인 브랜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에이닷에 신규 AI 서비스 2종 선택

노트, 음성 받아쓰고 요약·정리 브리핑, 일상 분석해 정보 제공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에 ‘노트’와 ‘브리핑’ 등 신규 서비스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노트와 브리핑은 고객들이 생활속에서 자주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SK텔레콤은 향후 정식 출시되면 고객들의 편의 향상은 물론 개인 AI 이용 경험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닷 노트는 음성으로 이뤄지는 모든 순간을 AI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회의나 강의, 상담 등 일상에서의 음성을

AI가 실시간으로 받아쓰고 요약하고 정리해준다.

서비스에 적용된 AI기술은 단순히 음성을 인식해 받아쓰는 것이 아닌 문맥에 맞춰 자연스러운 문장 형태로 보정하거나 문서의 형태로도 만드는 등 기존 대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낱선 용어가 나올 경우 별도의 앱이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AI를 통한 웹검색으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에이닷 노트는 녹음 종료 후 ▲요점 정리 ▲회의록 ▲강의 노트 가운데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하면 해당 형식에 맞춰 중요한 키워드와 주제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묶어 정리해 준다.

SK텔레콤은 에이닷 노트 서비스를 에이닷 앱과 PC 웹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활용 편의를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픈 베타 형태로 제공되는 노트는 1회 녹음 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제공된다.

에이닷 브리핑은 사용자의 일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앰비언트(Ambient) 에이전트’ 서비스다. AI 개인 비서라는 에이닷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브리핑 서비스는 원하는 고객에 한해 직접 요청 없이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하루를 시작할 때 브리핑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해진 일정에 따른 동선별 날씨나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를 추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KT, ‘시맨틱 통신’으로 6G 핵심기술 개발

노키아 벨연구소와 ‘맞손’

KT는 시맨틱 통신(의미 전달 통신) 연구 개발을 통해 6G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맨틱 통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데이터가 지닌 의미나 맥락을 이해하고 핵심 정보만 추출해 전달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시맨틱 통신은 AI가 통신 과정에서 주고받는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KT는 영상·음성 통신 분야에 시맨틱 기술 내부 실증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기존 대비 현저히 낮은 데이터 전송량으로도 사용자 체감

품질 저하 없이 원본 의미를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KT는 시맨틱 통신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네트워크 혼잡 구간이나 대역이 제한된 위성 통신에서도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자체 연구뿐 아니라 기술 개발·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통신 기술 연구기관 노키아 벨연구소와 손을 잡았다. 양사는 연초 6G 시맨틱 통신 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미국 벨연구소 본사에서 6G&시맨틱 통신 기술 워크숍도 개최, 양사 기술 비전과 로드맵을 공유했다.

/김서현 기자